

대자연 속 인생과 사랑... 평온한 선율에 숨어있는 슬픔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2>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와 모차르트 '클라리넷협주곡'

클래식이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것은 빈번하지만, 이 음악만큼 원래부터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곡은 드물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는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622'의 2악장이 흐른다. 이듬만으로도 영화가 되는 두 배우 메릴 스트립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출연했던 영화에서 주인공 데니스(로버트 레드포드 분)는 아프리카 케냐까지 축구를 들고 와서 모차르트를 듣는다. 아직 아프리카를 가보지 못했지만 이 영화 덕에 죽기 전에 꼭 아프리카에 가서 석양이 떨어지는 시간에 모차르트를 들어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됐다.

영화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은 모든 이야기를 대신 해준다. 대사 없이 인물들의 눈빛과 음악만으로도 영화의 내용이 대충 가늠이 된다. 모차르트는 1756년에 태어나서 1791년까지 활동했던 오스트리아 작곡가지만, 200년 후 1985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에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멜로디를 작곡했다. 마치 원래부터 영화를 염두에 두고 작곡을 한 것처럼 말이다. 그의 음악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 영화는 실제 주인공인 카렌 브릭센이 원작 소

설을 썼고 이후 시드니 폴락 감독에 의해 영화로 구성됐다. 덴마크에 사는 부유한 독신녀 카렌(메릴 스트립 분)은 약혼자 브릭센을 따라 아프리카로 온다. 케냐에서 커피 재배 사업을 하던 브릭센과 결혼식을 올린 후 커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그 후 브릭센은 1차 세계전쟁에 참전해 버린다. 혼자 남은 카렌은 어느 날 초원에 나갔다가 사자의 공격을 받게 되고 데니스에게 도움을 받는다.

데니스에게 묘하게 끌린 카렌은 이혼 후 결혼하자 청하지만 데니스는 너무도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커피 농장에 큰 불이 나 잦터미로 변해버린 모



할리우드 스타 메릴 스트립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을 맡은 영화 '아웃오브아프리카'에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협주곡' 2악장의 선율이 흐른다.

습을 본 카렌은 사람도 사물도 그 어떤 것도 소유가 아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 준 데니스의 뜻을 받아들였고, 그 곳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마지막 배웅을 약속한 데니스를 기다리던 카렌은 비행기 추락으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루어 질 수 없었던 그 둘의 사랑은 이렇게 가슴 아픈 결말로 쓸쓸히 막을 내리고 카렌은 마음속의 추억만 남긴 채 케냐를 떠난다.

영화를 처음 봤던 때 나는 사랑이 뭘지 전혀 알지 못했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영화에서 전하려 하는 메시지가 확실히 느껴진다. 진정 사랑한다면 상대를 소유 하는 대신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뭐든지 흘러가게 자연스럽게 놔둬야 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말이다.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배경음악인 클라리넷 협주곡이 평온하게만 들렸을 텐데 비극으로 끝나니 웬지 아련하게 느껴진다. 아직도 데니스가 카렌의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과 둘이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케냐의 나쿠루 호수 위를 비행하던 장면이 흐르던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 선율을 잊을 수가 없다. 카렌이 앞자리에서 손을 내밀고 데니스가 뒷자리에서 손을 잡아주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해도 두 사람의 사랑이 해피 엔딩이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둘은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이 영화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차르트 음악은 평온한 선율이지만 그 안에 슬픔이 숨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 밝고 명랑한 모차르트였지만, 어찌 천재 음악가

라고 슬픔이 없었겠는가. 그는 언제나 슬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프랑스의 유명 클라리넷 연주자 미셸 포르탈은 이 협주곡 2악장에서 모차르트의 고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음악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철저하게 고독을 전달하는 것이 이 곡을 연주하는 자의 사명이다.

영화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들이 더 슬퍼지는 이유다. 이 장면에서 모차르트 음악이 아닌 낭만 넘치는 로맨틱 선율이나 과도하게 우울한 선율이 흘렀다면 영화의 감동은 줄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카렌에게 모차르트의 협주곡은 언제까지나 데니스를 기억하게 하는 비가(Elegy)일 테니.

모차르트는 친했던 클라리넷 연주자 안톤 시타들러(1753-1812)를 위하여 '클라리넷 5중주곡 A장조, K.581'과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622' 두 명곡을 작곡했다. 모차르트가 클라리넷을 위해 작곡한 곡은 이 두 곡이 전부다.

클라리넷은 플루트에 비해 일반인들에게 대중적인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음색 면에서는 플루트 못지않게 매력적인 악기다. 외관상으로 얼핏 보면 금관악기 같지만 클라리넷은 따뜻한 음색을 가진 전형적인 나무악기의 특징을 갖고 있다. 작곡자들은 좋은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는 표현할 악기의 특징을 잘 간파해야 한다. 같은 멜로디라도 어떤 악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듣는 이의 감동은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노래도 가수의 음색에 따라 전혀

지는 감동이 천차만별인 것과 같은 원리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모차르트는 당시에 새로운 목관악기였던 클라리넷에 대해 무척 잘 알고 있는 작곡자였다. 오케스트라에서 조율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약한 날카롭고 예민한 음색의 오보에(Oboe)에 비하면 클라리넷은 저, 중, 고 각 음역대마다 음색이 다채롭게 변하는 팔색조 같은 악기다. 모차르트는 당시엔 많이 연주되지 않았던 목관악기 클라리넷에 또 하나의 명곡을 선물해 준 셈이다.

모차르트의 유일한 클라리넷 협주곡인 이 곡은 1791년(35세) 모차르트가 죽기 두 달 전에 완성됐다. 자신의 죽음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도 음악 천사 모차르트는 삶에 대한 실망과 원망의 선율이 아닌 인간에게 희망과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음악을 통해 선물해 줬다. 그의 나이 35살, 슬슬 모차르트의 인생이 저물어 가는 시점이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건강도 안 좋아졌지만 그는 끝까지 음악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한 장면.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 622 - 2악장 Adagio'

영화와 함께 다시 한 번 음악을 감상하고 싶다면 알프레드 프린츠의 클라리넷 연주에 칼 뵘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음반을 추천한다. 1974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된 음반인데 정통 빈 필의 풍요로움에서도 세련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빈 출신으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도 활동한 프린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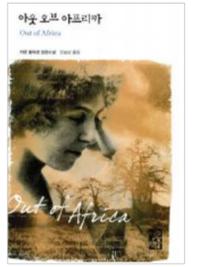
클라리넷은 과도하지 않고 담백한 모차르트의 정조를 한껏 느끼게 해준다.

잭 브라이머의 클라리넷 연주와 아카데미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도 추천한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했던 음반으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쓰였다. 호젓하게 흐르는

목관악기 클라리넷의 매력을 한없이 발산하는 연주다.

아름다운 모차르트 선율에 가사를 입힌 곡도 인상적이다. 벨기에 출신 가수 다나 위너의 'Your Forever' 음반에 실려 있는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는 아침이 올 때까지 나와 같이 있어 달라는 가사와 고혹적인 목소리가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다.

추천 음반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